

곡성군, 예술인 생계 지원 '아트콜라보 프로젝트' 추진

연말까지 4억 들여 기차마을·강빛마을 등 공공미술 설치 이이남·임근우 작가 등 40명 참여...문화브랜드 가치 확장

곡성군이 '아트콜라보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 19로 힘들어진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곡성군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로 했다.

곡성군은 연말까지 총 4억원 예산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곡성 아트콜라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곡성군이 주관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예술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곡성군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한국실협예술정

신 측과 위탁협약을 맺었다.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를 비롯해 임근우·문정규·김석환·변영환·다음·로즈박 등 장르별 미술가 40여 명이 참여한다.

작가들은 곡성레저문화센터와 기차마을 전통시장, 강빛마을에 다양한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한다.

곡성레저문화센터는 중심으로는 LED 조명을 활용한 아트 벤치 12점과 곡성 대표 캐릭터 레이 조형물 등 4점의 조형물이 설치된다.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간판에는 미디어 아트 작품이 설치된다.

작품에는 '나란히 흐른다'라는 주제로 전라선 기

차집과 섬진강·장마·토란 등 곡성의 대표 상징물이 역동적으로 표현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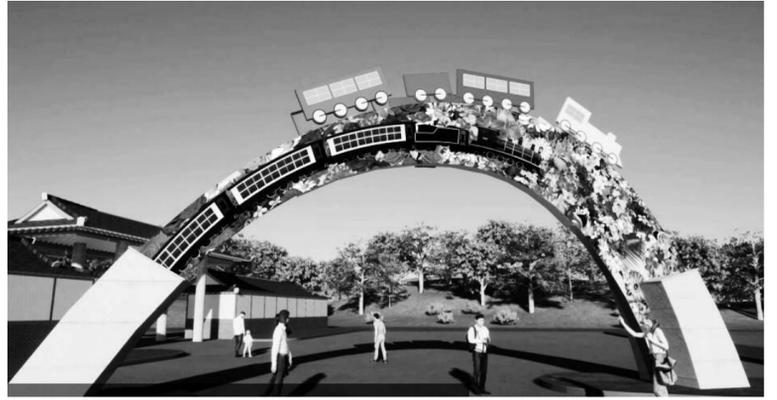
죽곡면에 위치한 강빛마을에는 '마을, 미술을 입히다'라는 컨셉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마법사 방, 장미하우스, 몽환의 여인 방, 돈벼락 방, 구름 물고기 방 등 19동의 건물에 테마가 있는 하우스갤러리를 세운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조명선을 지그재그로 연결해 밤에는 별빛처럼 빛을 발하고, 낮에는 것발 미술 등 다양한 설치미술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김백기 감독은 "프로젝트를 통해 곡성군이 정정곡성에서 문화 곡성으로 브랜드 가치를 확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기차마을을 형상화 한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 조감도.

순천시, 승주읍에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세운다

100억 들여 내년 2월 착공 시제품 개발·마케팅 지원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의 윤곽이 드러났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건축비 100억원을 들여 승주읍 일원에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를 짓는다.

연면적 2915㎡ 부지에 생산동 1층, 연구·지원동 3층 규모다. 지난 9월 설계 공모를 마치고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들어갔다.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는 공정설계·제품개발 용역과 건축 설계가 끝나대로 내년 2월 착공해 12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순천지역뿐만 아니라 남해안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식품 상품 개발, 기능성 분석 및 평가, 공정 컨설팅, 마케팅 지원, 시제품 개발, 중소기업의 위탁생산, 창업 지원 등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발효산업 메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 조감도.

한편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 지난해 50억원 등 총 100억원이 투입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군-순천제일대, 'AI드론 인력양성교육' 졸업 비행



구례군은 순천제일대와 관·학 거버넌스를 구성해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개설한 'AI드론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3일까지 8회 총 40시간 동안 구례군 공설 운동장에서 진행한 이번 교육은 드론 운용 및 재난 대비 영상 촬영 실무를 병행했다.

이 과정으로 군민 14명의 졸업생이 배출됐고 10명이 드론교육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번 졸업 비행과 수료식을 마친 교육생들은 "각 분야에서 활용도가 늘어나는 AI드론이지만 실제

교육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직접 지역을 찾아와 지도해준 대학측의 배려와 수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과정을 운영한 정강용 교수는 "드넓은 교육장 여건, 수강생들의 높은 교육 열기와 호응에 보람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지역사회의 구인·구직난 해소와 실무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6월 순천제일대와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해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 오동도 진입로·광장 정비...열린 생태공원 '새단장'

여수시는 오동도 입구 진입도로와 광장을 정비하고 관리등을 신축하는 등 오동도를 열린 생태공원으로 새단장 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수시는 오동도 입구에 있던 컨테이너 가설물을 철거하고 통합관리동과 화장실을 신축했다.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전신주를 지중화하고 주차장 관련 장비를 새로 설치했다. 이용객이 많은 동백열차의 회차장과 승강장을 만들고 광장 내 보도블록도 교체했다.

여수시는 도비 7억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동백숲 무장애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오동도는 해마다 300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명소이지만, 진입로와 주차장 주변에 설치된 시설물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내년에 동백숲 무장애길이 완공되면 탐방객이 편리하게 오동도를 탐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여수시가 오동도 진입도로와 광장을 정비하고 관리등을 신축하는 등 오동도를 열린 생태공원으로 새단장 했다. <여수시 제공>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전시 전문해설사 15명 추가 모집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은 12월 18일까지 박물관 전시 전문해설사 양성 교육대상자를 15명 내외로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박물관 전시 전문해설사는 분청문화박물관 및 조종현·조정래·김초혜 가족문학관에 전시된 고흥의 문화유산을 관람객들에게 알기 쉽게 소개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평소에 고흥의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즐기면서 배려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관내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실무실습 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다.

양성교육은 내년 1월 12일부터 2월 26일까지 총 23회 동안 분청문화박물관 강당에서 진행되며, 고흥의 역사, 분청사기 및 도자기, 설화, 문학, 민속 등 박물관에 전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한 강의형 수업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